

“국내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전문기관 위상 갖출터”

품질평가 · DB가이드넷 · 인력양성 · 사이버전시장 등에 센터 역량 집중

글 신중훈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각종 정보와 콘텐츠들이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콘텐츠 시대에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입니다.”

창립 11주년을 맞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의 원영희 전무는 올해를 고품질 데이터베이스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아울러 DPC가 국내 최고의 데이터베이스(DB)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DPC를 디지털콘텐츠 시대에 걸맞은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정기이사회에서 국책 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원 전무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더욱 다양해지고 그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DB 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무절제하게 생성되는 정보 데미에 묻혀 혼란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월중 품질평가센터 발족

원 전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주요기관 및 기업들의 DB 품질을 평가한 결과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있어서는 관리 규정조차 갖추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인 데다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면서 품질 수준의 저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DPC는 올해부터 국내 DB 품질 수준 향상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의 기간동안 DPC 사업이 DB 산업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DB 품질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얘기다. 올해 DPC가 추진하는 17개 주요사업 가운데 원 전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DB 품질평가를 비롯해 DB 구축 운영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사이버 전시장 운영 등 4가지. 이 가운데 DB 품질평가는 DPC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사업으로 DPC는 우선 이 달 중으로 'DB 품질평가센터'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DPC는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국내 DB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편리하게 자사의 DB에 대한 품질 진단과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품질평가모델'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각 DB의 강점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고품질의 DB를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 전무는 "DB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누구라도 자신의 DB에 대한 품질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 DB를 선정해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DPC는 DB에 대한 '표준 품질관리 지침'을 개발, 각 기업 및 기관들에 보급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이 자발적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B가이드넷 국내 최고의 보탈사이트로 발전

DPC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DB가이드넷(www.dbguide.net) 서비스 역시 원 전무가 올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다.

DB가이드넷은 DB의 기획·설계·구축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단계에까지 필요한 기술과 시장, 정책, 동향 등의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DB관련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Q&A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DB가이드넷에서는 국내 최고의 DB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DB 원가산정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원 전무는 "DB가이드넷을 통해 DB 산업 종사자들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파트너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향후 3년 이내에 국내 최고의 보탈사이트(Vertical Portal Site)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DB교육센터 확대 개편

이와 함께 DPC는 올해 DB 실무자들이 신기술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교육센터'를 확대 개편,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을 DB 활용을 중심으로 한 초급과정과 DB 설계·구축 등의 실무과정, DB 성능·튜닝 등 고도의 DB 기술을 요하는 고급과정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급 기관의 위탁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DB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일조하겠다는 것.

사이버 전시장 중국관 오픈

DPC는 이러한 DB관련 지원사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을 위한 각종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원영희 전무는 "수많은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우수한 콘텐츠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홍보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 누구나 자사의 콘텐츠를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 전시장 온엑스포(www.onexpo.or.kr)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엑스포는 DB 및 DC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과 기업정보를 온라인상에 전시하는 사이버 전시장으로, DPC는 특히 올해부터 국내 디지털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바이어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입점 기업들의 제품 및 기업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도 서비스해 기업들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 전무는 "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DB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디지털콘텐츠 시대를 맞아 DB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우수한 DB 자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무는 "이러한 일련의 중점사업들을 통해 DPC는 올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진단하는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DB정보센터, DB교육기관, 디지털콘텐츠 관련 홍보·마케팅 센터 등으로서의 위상을 갖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DB 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PC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평가기관으로서, DB정보센터로서, DB교육기관으로서, 디지털콘텐츠 관련 홍보·마케팅 센터로서의 위상을 갖춰 국내 최고의 DB 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